‘라이언 킹’ 이동국 2년만에 태극마크

■허정무號 파라과이 친선전 명단 23명 발표

박지성·이청용 제외…조동건·이승현 발탁

이동국(30·전북 현대 사진)이 허정무 감독의 부름을 받고 2년 만에 태극마크를 다시 달았다.

그러나 대표팀의 ‘캡틴’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개막에 맞춰 이번 명단에서 빠졌다.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3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4일 열릴 파라과이와 친선경기에 나설 대표팀 소집 명단 23명을 발표했다.

대표팀은 지난 6월17일 이란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8차전을 끝으로 해산됐고 내년 월드컵 본선을 대비해 오는 9일 낮 12시 파주 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다시 모인다. 대표팀은 파라과이와 평가전을 시작으로 9월5일 호주, 10월10일 세네갈과 차례로 맞붙는다.

이번 대표팀 명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동국의 발탁.

이동국은 지난 2007년 7월 아시안컵 이후 2년 1개월여 만에 대표팀에 복귀했다. 허정무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2007년 12월 이후에는 처음이다.

아시안컵 당시 음주 파문에 휘말려 1년 자격정지를 받았던 이동국은 지난달 5경기 연속 득점 행진을 펼치는 등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14골을 넣어 득점 부문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06년 요하네스 본프레레 감독 시절 ‘황태자’로 불리며 대표팀 주전 공격수로 활약했던 이동국은 A매치 71경기에서 22골을 사냥하는 득점력을 과시했고 이번 시즌 전북으로 옮겨 전성기 시절 못지 않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

허정무 감독은 이동국 발탁 이유를 묻는 말에 “최근 K-리그에서 골을 많이 넣고 있고 위치 선정이나 상대 수비 배후로 파고드는 게 뛰어나다.

또 수비수의 볼을 빼앗아 슈팅을 하는 등 이전보다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지성은 오는 16일 프리미어리그가 개막함에 따라 팀 주전 경쟁을 고려해 명단에서 제외했다.

해외파 중에는 공격수 박주영(AS모나코)과 이근호(주빌로 이와타), 미드필더 조원희(위건), 수비수 이영표(알 힐랄), 김동진(제니트)이 포함됐다.

또 지난달 러시아 사마라에서 울산 현대로 이적하며 국내 무대로 복귀한 수비수 오범석도 23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프리미어리그 볼턴 원더러스에 최근 입단한 미드필더 이청용은 취업 비자를 받고 팀에 적응할 시간을 주려고 명단에서 뺐다.

국내 K-리거 가운데 작은 체구에도 돌파력과 스피드가 뛰어나 ‘조커’로 활용할 수 있는 이승현(부산)은 생애 처음 태극마크를 달았다.

허 감독은 “월드컵 본선 준비 과정의 시작하는 상태에서 주전 몇 명이 빠지고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왔다. 차분하게 준비해 경쟁력 있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전을 다짐했다.

◇축구대표팀 소집 명단(23명)

△GK = 이운재(수원) 김영광(울산) 정성룡(성남) △DF = 조용형 강민수(이상 제주) 이정수(교토) 김형일 최효진(이상 포항) 김동진(제니트) 오범석(울산) 이영표(알 힐랄) △MF = 조원희(위건) 김정우(성남) 기성용 김치우(이상 서울) 이강진 이승현(이상 부산) 염기훈 오장은(이상 울산) △FW = 이근호(이와타) 박주영(AS모나코) 이동국(전북) 조동건(성남) /연합뉴스

“박지성 제외는 許감독의 배려”

英 프리미어리그 16일 개막

“일정 빡빡…팀 적응이 먼저”

“꼭 필요한 선수지만 시즌 초반 소속팀에 잘 적응해야 결과적으로 대표팀에도 도움이 된다”

축구대표팀 사령탑인 허정무 감독은 3일 파라과이와 평가전을 앞두고 대표팀 명단 23명을 발표하면서 ‘캡틴’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을 뺀 이유를 이같이 짤막하게 설명했다.

남미의 ‘강호’ 파라과이와 친선경기는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을 통과한 한국 대표팀으로서는 월드컵 본선 무대를 향한 첫 관문으로 중요한 경기다. 하지만 허정무 감독은 고민 끝에 ‘팀 적응이 먼저’라는 결론에 따라 팀 전력 박지성의 대표팀 제외를 결정했다.

오는 16일 개막하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2009-2010시즌을 준비하는 박지성을 특별히 배려한 것이다.

지난달 22일 방한한 맨유 선수단에 합류해 같은 달 24일 FC 서울과 경기 때 후반 28분 교체 투입돼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던 박지성은 중국 항저우 그린타운(7월26일)과 경기에 이어 독일 아우디컵에 참가했다가 꿀맛 같은 사흘간의 휴식 시간을 보낸 뒤 4일 영국 맨체스터 캐링턴 구장에 다시 모여 시즌을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박지성은 정규시즌 개막을 앞두고 일정이 빡빡하다.

맨유는 7일 발렌시아, 10일 첼시와 차례로 친선경기를 치르고 나서 17일 안방인 올드트래퍼드에서 버밍엄과 정규시즌 개막전을 벌인다.

박지성으로서는 대표팀에 뽑히면 10일 첼시 경기 직후 한국으로 건너와 12일 파라과이와 평가전에 출전하고 나서 숨 돌릴 틈도 없이 정규시즌 개막전을 맞아야 할 처지다. /연합뉴스

‘연장 혈투’ 광양제철고 우승

전국고교축구 배재고 2-0 꺾어

이중권-MVP, 지동원-득점상

광양제철고등학교(교장 송기재) 축구부가 제64회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광양제철고는 3일 강원도 삼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국고교축구선수권 결승전에서 배재고를 2-0으로 꺾고 대회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경기의 전반적인 흐름은 광양제철고가 주도했지만 배재고의 골문을 열지 못하면서 승부는 연장전까지 이어졌다.

연장 후반 4분 코너킥 상황에서 청소년대표 이종호(2년)가 헤딩으로 결승골을 넣으며 0-0의 팽팽한 균형을 깼다.

4분 뒤 지동원(3년)이 배재고 골문 앞에서 상대 선수의 패스를 가로챈 뒤 강슛을 터트리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4강전에서 풍생고를 연장 접전 끝에 2-1로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했던 광양제철고는 뒷심대결에서 우위를 점하며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중권(3년)은 최우수선수상, 8골을 기록한 지동원은 득점상, 황도연(3년)은 수비상, 김태성(2년)은 골키퍼상을 각각 받았다.

지난해 광양제철고 감독으로 부임한 뒤 백록기에 이어 두번째 우승을 이끈 김인완 감독은 “예선부터 모두 7경기를 치르는 강행군을 하면서 결승전은 체력 싸움이됐다”며 “선수들 모두가 연장 후반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 우승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양제철고는 1996년 창단 이후 전국대회에서 13번째 우승의 영예를 안게 됐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kwangju.co.kr

광양제철고등학교 축구부가 3일 삼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전국고교축구선수권대회 배재고와의 결승에서 2-0으로 승리를 거둔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역시 펠프스!

세계수영선수권 5관왕

‘수영황제’ 마이클 펠프스(미국)가 2009 로마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혼계영 400m에서 금메달을 추가하며 대회 최다인 5관왕에 올랐다.

미국 대표팀은 3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포로 이탈리코 콤플렉스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 혼계영 400m 결승에서 3분27초28의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했다.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미국이 작성했던 종전 세계 기록(3분29초34)을 2초06 앞당겼다.

이로써 베이징올림픽 8관왕인 펠프스는 이번 대회에서도 계영 400m, 접영 200m, 계영 800m, 접영 100m, 혼계영 400m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회 최다인 5관왕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프로농구 ‘서머리그’

플레이오프 오늘 시작

프로농구 2군리그 격인 2009 KBL 서머리그 플레이오프가 4일부터 시작된다.

서머리그 정규리그 2위 대구 오리온스와 3위 인천 전자랜드가 3전 2선승제로 펼치는 플레이오프 1차전은 4일 오후 3시 경기도 용인시 오리온스 백암 체육관에서 열린다.

2차전은 6일 같은 시간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진행되며 1승1패가 되면 8일 오후 3시 다시 오리온스의 홈 경기로 3차전이 이어진다.

승리 팀은 정규리그 우승팀 상무와 역시 3전2선승제로 10일부터 송파구 방이동 LG체육관에서 챔피언결정전을 벌인다.

애스턴 빌라 피스컵 정상 등극

유벤투스에 승부차기 승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애스턴 빌라가 극적으로 피스컵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피스컵에 처음 출전한 애스턴빌라는 3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세비야 올림피크스타디움에서 열린 ‘2009 피스컵 안달루시아’ 대회 결승에서 이탈리아 세리에A 유벤투스를 승부차기 끝에 4-3으로 물리쳤다.

애스턴빌라가 유벤투스를 꺾으리라는 예상은 누구도 못했다.

유벤투스는 세리에A에서 가장 많은 27차례 우승을 비롯해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2회, UEFA컵 우승 3회를 차지하는 등 화려한 전력을 자랑하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이기 때문이다.

유벤투스는 조별리그에서 2연승을 거뒀고 준결승에서도 ‘난적’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마저 2-1로 제압하고 피스컵에서 유일하게 3전 전승을 기록한 팀이기도 했다.

반면 애스턴빌라는 조별리그부터 불안한 출발을 했다. C조 1차전에서 말라가(스페인)에 0-1로 패한 애스턴빌라는 각 조 3위팀 중 1위만 4강에 진출할 수 있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할 위기에까지 놓였었다.

하지만 애스턴빌라는 2차전에서 아틀란테(멕시코)를 3-1로 완파하고 극적으로 4강에 진출한 뒤 준결승에서 FC 포르투(포르투갈)를 2-1로 물리치는 무서운 집중력을 보여줬다. 한편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MVP)상은 애스턴빌라 간판 미드필더 애슐리 영이 받았다. /연합뉴스